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삼성 평택 팹서 구체화

민형배 시장 등 방문단, 평택 고덕신도시·메가팹 현장 방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신도시 배후 인프라 살피
지역 맞춤형 클러스터 구축 총력…“기업의 시간에 맞출 것”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생산시설과 기반 인프라 등을 벤치 마킹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신속하게 준비 중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실·국·본부장 등 주요 간부 20여명은 20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실제 대규모 팹(Fab) 운영과 유지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교통·정주 여건 등 검증된 최첨단 기반시설 구축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단은 LH평택사업본부 안내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평택캠퍼스 주변을 버스로 둘러보며 대규모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연계현황을 살폈다.

이러 평택캠퍼스에 도착한 뒤, 삼성전자로부터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P5 공사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인 첨단 메가팹 건설 공정과 기반시설 공급 체계를 확인했다.

또 최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클린룸 윈도우 투어를 진행하며,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최신 설비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삼성전자 현장 관계자들과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착안점 등을 협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평택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전력·용수 공급망, 교통망, 정주 여건 등 첨단 반도체 팹 유치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전략을 한층 구체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은 “평택캠퍼스는 첨단 제조기반시설과 신도시 배후기능이 결합해 국가 전략산업의 심장으로서 도약한 대표적 모델”이라며 “P4, P5 현장을 보며 무엇을 더 일찍 준비해야 할지 확인한 만큼, 기업의 시간이 행정 때문에 지체되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가운데)이 20일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P5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지않은 날 평택이 아닌 광주 메가팹 착공 현장에서 다시 만나 ‘전남광주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국 공무

원 20여명도 지난 7월29일에 이어 지난 5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가동 중인 팹 일부와 배후 주거지 등 산업단지와 연계된 정주 여건을 살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평택을 잇따라 찾은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단지와 생산시설, 배후도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를 통해 광주공군항 종전부지에 팹 4기 규모의 반

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우선 개발 가능부지에 대한 기반공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 기업 성장, 대기업·공공기관 힘 모은다

지역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한전 등 8개 기관·기업 참여

에너지 스타트업 발굴·지원
로컬푸드 판로확대 프로젝트

전남광주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방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부터 기술·구매 협력, 로컬푸드 판로 확대까지 공동 지원에 나선다. 기관별 기술과 유통망, 지원 인프라를 지역기업에 연결해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동반위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출범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동반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기아, 배달의민족, CJ제일제당 등 8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협력체제로, 실무협의를 거쳐 3개 우선 협력과제를 마련했다.

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참여기관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상생협



한국전력은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협약식에 참여해 지역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육성 사업에 착수했다.

력 사업을 더 활성화할 예정이다.

먼저 한전 중심의 ‘전남광주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육성 프로젝트’는 유망기업 3곳에 총 약 3억9000만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대상은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있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 에너지신산업 스타트업이다.

이 사업에는 한전과 한전KDN, 한전KPS,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리산학융합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제품 상용화와 전문인력 확보, 투자 연계, 국내외 현장 실증, 수출 현지

화 등을 지원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규제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한전은 올해 12월 사업 종료 후 추진 성과와 참여기관 의견을 검토해 후속 사업 확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난 ON’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구매·기술협력을 확대한다. 현장 견학과 구매·기술상담을 진행해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실제 사업 현장에 연결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전남광주 로컬푸드 판로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쟁력 있

는 지역 식품기업을 발굴하고 온라인 유통채널과 판촉 역량을 활용해 판매 기회를 넓힌다.

동반위는 기관별 역할을 조율하고 지역현안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장인화 동반성장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선연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 AI산업 입주기업, 신규 고용 ‘뒤틀림’

지난해 채용 59명…3년 연속 감소·전년 대비 39.8% ↓

광주 AI산업융합집적단지 입주기업의 신규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AI창업캠프 및 AI산업융합집적단지 창업동 입주기업의 지난해 신규 고용은 5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규 고용은 2022년 144명, 2023년 103명, 2024년 98명, 지난해 59명으로 매년 줄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2022년보다 85명(59.0%)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입주기업 수는 150개로, 2024년 61개보다 89개 늘어 약 2.5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987억 5100만원에서 3722억6500만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기업 수와 매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신규 고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입주기업은 104개, 신규 고용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광주를 국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와 산업융합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올해부터는 총사업비 4557억원 규모의 범부처 AX실증밸리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기업 유치와 매출 규모뿐 아니라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지역기업 성장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광주에 AI 기업이 늘어나고 매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성과지만,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AI 산업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을 짓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신규 고용 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AI 산업 육성사업에서는 지역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

2031년 누리호로 공공·국방 첫 위성 발사 추진

매년 1차례 이상 발사…우주청장, 누리호 계획 공개

정부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이용해 국방 위성을 처음으로 쏘고, 다목적실용위성의 동반 위성 3기도 발사한다.

오세훈 우주항공청장은 20일 국무회의에서 2032년까지 누리호로 공공·국방 등 국가 위성을 연 1회 이상 발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1년 11차 발사에서는 초소형위성체계 전자광학(EO) 위성 4기를, 2032년 12차 발사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8호의 동반위성 3기를 누리호로 우주에 보내는 계획이 새로 공개됐다.

EO위성은 국방용 위성으로 누리호가 국방 위성을 쏘는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11차 발사는 앞선 발사가 모두 성공할 경우 누리호 발사 성공률이 90%가 되는 시점으로, 누리호의 신뢰도가 인정받는 시점에 국방 수요를 감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초소형위성체계 위성 4기를 2031년에 올릴 예정이고 이외에 8기 정도는 추가 협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리랑 8호는 합성레이더(SAR) 위성으로 동반위성 3기를 함께 운용하는 ‘멀티스테틱’ 방식을 최초 도입하며 이중 동반위성은 누리호로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대차·기아, 레벨 4 자율주행 대형트럭 실증 추진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업…실제 물류 노선서 운영

현대자동차·기아는 레벨4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를 위해 실제 물류 환경에서 기술 신뢰성과 운행 안정성 검증에 나섰다.

현대차·기아는 남양기술연구소(경기도 화성시)에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마스오로, 라이프플렉스와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물류 운송 사업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실제 물류 노선에서 레벨 4 자율주행 대형트럭을 운영하며 차량 제어 기술과 자

율주행 시스템 연계 성능을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현대차·기아는 엑시언트 수 소전기트럭 1대와 엑시언트 1대 등 총 2대의 실증 차량 개발에 착수해 내년 초 제공할 예정이다. 각 차량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연동을 위한 맞춤형 제어기와 차량 인터페이스가 적용된다.

본격적인 실증은 내년 말까지 약 100km의 고속도로·도심 복합 구간과 약 400km의 고속도로 중심 장거리 구간 등 2개 운

송 환경에서 진행된다.

국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마스오와 라이프플렉스는 각 특화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에 운영되는 물류 노선을 활용해 실증 운영을 지원한다.

현대차·기아는 이 과정에서 자체 선행 개발과 외부 전문가기업과의 협업을 병행해 자율주행 시스템과 차량 제어 기술 간 연계 역량을 축적하고,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벨 4 자율주행 대형트럭의 차량 제어 및 안전 이중화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안전 이중화 기술은 일부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보조 시스템이

해당 기능을 대신해 차량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로, 장거리·야간 운행 비중이 높은 대형트럭의 자율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GM담당 부사장은 “자율주행 트럭은 물류 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미래 모빌리티”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실제 물류 환경에 필요한 차량 제어 기술과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고, 레벨 4 자율주행 대형트럭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 1일 서울시와 레벨 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화 차량과 관계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